

특별기획

군산 아동·청소년 안전교육 미흡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단합대회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 1팀은 "지리산 비래봉 등반으로 건강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소 화식으로 근무 종료 후 음주를 즐기는 단합대회를 과감히 없애고 휴무일을 이용해 팀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면서 체력증진을 위해 지리산 비래봉을 등반을 통해 직원 간 서로 팀 홀리면서 그동안 일에 치여 하지 못했던 대화도 나누며 동료 간 소통하고 상호간 정보 교류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기회를 가졌다.

중앙지구대장 김용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음주로 인한 의무반만 없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기업 규제사항 해소 간담회

군산시는 19일 공단발전협의회와 경기 참패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과 비전화적인 기업 규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한국유리공업(주) 이강훈 전무를 비롯한 공단발전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인들이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법령규제 중 개선할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군산에서 일반포만 내 주차난 해소와 주변 환경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로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신단 활성화에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의료급여기관 관계자 간담회

군산시는 19일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급여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산시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병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의료급여 이용후이 및 사례관리사업 안내, 장기입원관련 의료급여 지급실제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또 장기입원과 관련한 의료급여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최근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원 진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기관 각 병원에서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실습시간 부족...이론·스크린·영상교육 등이 전부 현장 대응 능력 떨어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 지역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재난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실태를 보면 실습시간은 현저히 부족하고 이론, 스크린, IT영상교육 등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유·초·중·고교는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해 학년별로 연간 5시간씩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은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안전처와 교육부는 다양한 형태의 초등학교 안전 자료 앱(App) 등을 개발해 보급 활용하고 있어 양적인 교육은 증가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습 장비를 대어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실제, 작동 시 분사되는 교육용 소화기의 경우 170만원의 고가장비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매하지 못하는 곳도 허다하다.

심장 기능과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제세동기 보유 현황은 2016년 4월 기준 초등학교 56교 중 29교, 중학교 19교 중 5교, 고등학교 12교 중 5교, 특수학교

1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안전관련 전문가에 의뢰해 심폐소생술마케팅, 화재발생기, 교육용 소화기 등의 장비를 활용한 유치원 학교 및 단체는 단 16곳에 불과했다.

한 안전교육 관계자는 "어린이 행복 도시를 지향하는 군산시가 안전에 대한 시설과 행사 등에 집중하면서 사고 예방과 유사 시 대처능력을 기르는 교육 등에는 소홀한 면이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서 학교나 단체, 시설 교육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의 안전교육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유사 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7공수특전여단-마인드테라피 협의회 협약

장병·군인가족 대상 심리치료 교육 진행

특전사 예하 제 7공수특전여단은 최근 한국마인드테라피협회와 장병 인성교육 시 심리치료 기법을 적용한 교육 지원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 및 교육 지원은 최근 육군에서 강조되고 있는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의 연장선으로, 간부들 위주로 편성된 특전부대에 부합된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심리치료 전문가인 한국마인드테라피협회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장병뿐만 아니라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는 심리치료 교육도 병행하여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무의식 심리교육'으로 알려진 '사이진(Psygene)교육'을 교육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특강은 물론이고 인성문제와 심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콤팩트부 소

년원과도 프로그램 적용 및 공동 연구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장병 심리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한국마인드테라피협회 교육전문가인 이사 및 팀장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부대별 집중인성교육 기간에 적용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트라우마 및 심리장애 극복 교육과 심리적 예방과 성격형성을 위한 심리 및 자기 성찰정리 해 교육 등으로 편성되어 반기별 12시간씩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기혼부부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성심리·가족 대화심리·트라우마 및 심리장애 치료 교육을 분기별 20쌍 내의 부부동원으로 매주 1회씩 10주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농기센터, 화상병 유입 차단 과수원 예찰

23일~7월 8일까지 2회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3개반 8명 전문가 조사 실시

익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충남 천안 제천 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 농가에 큰 타격을 준 '화상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과,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5월 23일~7월 8일까지 총 2회에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 익산원형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3개 반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찰요원 이 조사를 한다.

과수 화상병은 배나무나 사과나무 등을 말라죽게 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제도 없다. 이

때문에 화상병이 확인되면 반경 100m 안에 있는 과일나무는 모두 소각해 땅에 묻어야 하기 때문에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화상병 의심자가 발견되면 의심주 시료를 채취한 다음 줄기를 잘라 묻거나 태우고, 접근 금지 표시한다. 채취한 시료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정밀 검사하고 화상병으로 판명되면 해당 과수원은 굴취, 매몰 처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화상병의 박멸을 위해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전염원을 없애기 위해 농업인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고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과, 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앞서 익산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을 차단하기 위해 사과,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과수 병해충 방제교육 등 4회에 걸쳐 화상병 방제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예방 약제 공급과 동시에 방제를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유람선 충돌·화재 재난대응 훈련 실시

익산시는 지난 19일 오후2시경 익산시 용포면 곰개나무 일원에서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 실제훈련인 '내수면 유람선 충돌 및 화재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군부대(제757부대, 제858부대 3개대),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 한전익산지사, KT익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익산시지원봉사단, 자율방재단,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지역 내 병원 등 29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헬기, 선박, 보트, 구급차 등 73대의 장비가

투입되고, 40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지역 내 유람선이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원 및 복구 문제점 개선 등 전반적인 재난사고 대응방안이 전개됐다.

훈련이 끝난 뒤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상호평가와 토론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 대한 재난사고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보건소, 건강한마을 만들기

군산보건소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20일 나운주공 4차아파트에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운주공 4차는 2013년 건강한 마을 만들기 선정돼 매년 지역사회 통합 캠페인을 열고 있다.

올해는 주민 한바탕 축제와 연계해 주민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며,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연계기관과 함께 건강정보와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주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장에너지 GE4 열병합발전소 준공

군장에너지주식회사는 지난 18일 군산일반산업단지 내 GE4열병합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곳 발전소는 시간당 950t의 증기와 25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다. GE4열병합발전소는 사업비 5,50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3년 5월에 착공 약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됐다.

특히 발전소 공사기간동안 연간 2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향후 산업단지자립추진체들에게 저렴한 증기를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약 2만평의 부지에 CFBC보일러, 터빈, 열수송시설등을 설치한 이곳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월 평균 약 60만t의 증기와 18tMW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연간 1,8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액이 예상된다. 이로서 군장에너지는 약 4만평의 부지위에 총가의 보일러를 갖추고 시간당 1800t의 증기와 40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됐으며 연간 3,500억원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리"를 사셔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오래 쓰면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리" 실제 설치!

청소액 [박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